

韓國現代教育史上에 있어서 基督敎學校의 位置와 그 貢獻

金 良 善*

序論. 腐敗된 舊敎育과 渴望되는 新敎育

1. 五百年來 不變의 舊敎育制度
2. 黨爭의 溫床이 된 敎育機關
3. 渴望되는 新敎育

一. 宣敎事業과 現代敎育

1. 在日美國宣敎師團의 韓國宣敎 및 敎育에 對한 計劃
2. 카우치總長과 閔泳翊과 韓國現代 敎育
3. 宣敎初期의 敎育事業
4. 敎會 옆에 學校

二. 韓國 現代式敎育機關의 濫觴

1. 最初의 男學校 培材學堂
最初의 女學校 梨花學堂
2. 最初의 國立學校 育英公院
3. 最初의 大學校 崇實大學
4. 最初의 醫學校 세브란스醫學校

三. 韓國 現代敎育의 系譜와 特徵

四. 基督敎學校의 發展과 韓國 現代敎育의 育成

1. 基督敎學校단의 初創期 (1885~1893)
2. 甲午更張과 日本의 敎育侵略 (1894~1906)
3. 發展期의 基督敎學校와 私立學校 (1907~1909)

五. 基督敎學校의 受難과 民族精神의 守護(1910~1945)

1. 大轉換期(1910~1915)
2. 衝突期(1916~1929)
3. 受難期(1930~1945)

六. 解放以後의 基督敎學校

結 語
統 計 表

序論 · 腐敗된 舊敎育과 渴望되는 新敎育

1. 五百年來 不變의 舊敎育制度

李太祖는 建國 當初에 前朝의 佛敎와 武臣의 跋扈의 弊風에 鑑하여 治國의 根本精神을 儒敎에 두고 偃武修文의 政治을 施行하였다. 그리하여 國都를 서울에 定한 後 곧 文廟를 세워서 崇奉하고 各道·州·府·郡·縣에 學校를 세워서 크게 文政을 行하였다. 그 學制를 보면, 太祖는 그 6年 2月에 最高學府로서 大學 卽 成均館을 서울에 建設하고 孔子를 祭祀함과 함

* 史學科 敎授

게 儒學으로써 子弟를 가르치게 하였다. 그 學을 講義하는 곳을 明倫堂이라 일컬었고, 孔子를 祭祀하는 곳을 文廟라 稱하였다. 太宗 11年에는 서울에 東學堂·西學堂·中學堂·南學堂 등의 四學堂을 成均館과 마찬가지로 官立으로 建設하고 俊才를 모아 가르쳤다.

다음에 州府郡縣마다 鄉校를 建設하여 그 地方의 俊才를 모아 가르쳤다. 그것과 아울러 書堂이라는 私設初等教育機關을 全國 到處에 세워서 누구나 글을 배우게 만들었다. 士大夫의 子弟는 8~9歲가 되면 書堂에 들어가서 四書三經을 習讀하고 15~6歲가 되면 地方에서는 鄉校에 들어가서 서울에서는 四學堂中の 어느 하나에 들어가서 5~6年間 工夫한 후에 科擧에 應試한다. 科擧에 合格된 사람은 生員 進士의 稱號를 얻게 되며 또한 成均館에 들어가 다음에 다시 文科의 試驗에 應試 及第되면 비로소 官職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初等教育機關인 書堂에서부터 高等教育機關인 成均館에 이르기까지 그 目的으로 하는 바는 오로지 經學을 學得하여 科擧에 及第하여 官吏에 登用되는 데 있었다. 이 單純한 學政은 實로 李朝 五百年間 아무 變通이나 改良됨이 없이 韓末까지 계속되어 왔다.

2. 黨爭의 溫床이 된 教育機關

李朝初期에 있어서는 그러한 學制下에서 적지 않은 賢儒가 輩出되어 世宗朝와 같은 文運의 隆盛을 본 때도 있었으나 中期以後부터는 저 有名한 實學派 學者 丁若鏞先生이 當代의 學校를 評하여 「옛날의 所謂 學校란 것은 禮를 배우고, 樂을 익히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禮는 破壞되고 樂은 崩壞되어 學校의 教育은 다만 글 읽는 일을 할 뿐이라」(牧民心書)고 말한 것과 같이 儒生들은 儒敎의 本質은 沒却하고 그 形式만을 墨守하여 쓸데없이 枝葉末端으로 흘러가서 마침내 文弱에 빠지게 되고 實力없는 者가 權力과 背景으로 官職을 얻고자 권모와 술수를 일삼게 되니 여기서 이른 바 黨爭이 생기게 되었다. 學者間에도 慶尙北道에는 屏山派니, 虎溪派니 하는 派閥이 있었고 京畿道와 忠淸北道에서는 湖論이니, 洛論이니 하는 論爭으로 서로 中傷謀害하였다. 일자리란 官吏가 되는 것 밖에 다른 길이 없었는데 官職은 적고 그것을 얻으려는 사람은 너무 많아서 自然히 경쟁이 생기게 되었다. 그리하여 官職을 얻으려는 運動은 마침내 學緣, 地緣 或은 血緣을 中心으로 黨을 만들게 되었다.

이 때로부터 教育機關은 宛然히 黨爭의 溫床이 되어 버렸다. 그 反目과 軋轢이 쏠려 本末을 顛倒케 된 韓末에 있어서는 더욱 收拾키 어려운 亂麻의 狀態로 빠져 드러갔다. 게다가 大院君은 鎖國政策을 固執하여 國民으로 하여금 外部와 全然 氣息을 通치 못하게 만들었으니 앞서 죽음을 기다리는 수 밖에 다른 道理가 없게 되었다.

3. 渴望되는 新教育

아무리 大院君의 鎖國政策이 완고하다 할지라도 時運은 어떻게 할 재간이 없었다. 歐美諸

國의 艦船은 우리나라 沿岸到處에 來航寄泊하여 門戶를 世界에 열 것을 재촉하였고 이미 歐美의 文明을 받아들여서 開化維新에로 一路邁進하고 있는 隣國 日本과 淸國의 新氣風은 모르는 사이에 우리나라에 스며들기 始作하였다. 北으로 淸國을 배워야 한다, 東으로 日本의 開化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은 一般 뜻있는 사람들의 가슴에서만 아니라 國王과 文臣들의 마음 속에까지 싹트기 시작했다.

1873년 攝政大院君이 下野되고 國王의 庶務親政이 始作되자 新文明을 배워서 富國強兵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卓見은 금시에 대두되었다. 1876년의 金綺秀一行의 日本訪問이나 1880년의 金弘集一行의 日本訪問은 모두 新文化를 알아보는 그 첫 試圖였고, 1881년의 12 紳士遊覽團과 改革派의 巨頭 金玉均의 日本訪問은 바로 新文化를 배워오는 첫 걸음이었다. 그들은 歸國하여 新文化의 輸入은 新教育에 있음을 強力히 主張하였다. 1881年 紳士遊覽團의 隨員으로 同行했던 24 名의 靑少年中에 尹致昊, 兪吉濬, 柳完秀 3人이 東京에 殘留하여 尹은 同人社에 兪·柳 兩人是 慶應義塾에 入學하여 工夫한 것은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現代教育을 받은 最初의 일이 될 것이며, 同年에 카톨릭靑年 具允敬, 朴敬寅, 姜近永 3人이 上海에 遊學한 것과⁽¹⁾ 同年에 10餘名의 靑年이 工業技術의 習得을 위하여 徐載弼을 團長으로 日本東京에 遊學한 일과 그 翌年에 金玉均의 引率下에 50 名의 靑少年이 日本에 遊學한 일들은 모두 韓國現代教育史의 첫 머리를 빛나게 장식하는 일들이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天津遊學을 除外하고는 在日 美國宣敎師團과 直接 間接의 關係를 가지고 있는 점이 우리의 興味를 끄는 바이다. 다시 말하면, 1881年 12 紳士遊覽團의 一員으로 東京에 留學한 韓國最初의 留學生이었던 尹致昊先生은 後日 宣敎師의 앞선으로 美國에 건너가서 大學을 卒業하고 歸國하여 韓國에 南監理敎會를 創設함과 同時에 韓英書院 Y. M. C. A. 등을 創設하여 韓國現代教育에 크게 貢獻하였으며 1883年에 金玉均等의 50 名 留學生 派遣의 裏面에는 在日 宣敎師團의 뒷받침이 컸던 것이 事實이다.

一. 宣敎事業과 現代教育

1. 在日美國宣敎師團의 韓國宣敎 및 教育에 對한 計劃

韓國宣敎 및 教育事業을 가장 먼저 計劃한 곳은 在日美國宣敎師團이었다. 일찍 1878年에 그들은 日本基督敎 一致敎會 中會에서 韓國宣敎計劃을 提案하였고 同會는 6人의 委員을 選出하여 同計劃의 實踐方法을 강구케 한 바있다.⁽²⁾

(1) 六合雜誌 第15號 1881年 東京利

(2) 植村正久과 그 時代 第2卷 157頁

그러나 同事業은 1882年 李樹廷先生이 日本 東京에 건너가서 在日美國宣教師團과 密接한 關係를 가지게 될 때까지 정돈상태에 있었다. 李樹廷先生은 1882年 東京에 건너가자 곧 基督教에 改宗하였으며 在日美國北長老教會宣教師 닉스(G. W. Knox) 牧師와 同監理教宣教師 맥클레이(R. S. Maclay) 牧師와 더불어 韓國宣教를 計劃하는 一便⁽³⁾ 在日美國聖書公會總務 Loomis 牧師와 더불어 在日留學生들에게 傳道하는 同時에⁽⁴⁾ 앞으로 있을 本格的인 宣教運動을 위하여 聖書와 敎理書를 한글로 譯刊하여 韓國宣敎事業에 對備케 하였다. 그런데 이때에 改革派의 巨頭 金玉均先生은 李樹廷先生의 案內로 1882年以來 數次 在日美國宣敎師들을 만나서 韓國宣敎 및 敎育事業에 對한 論議를 한 바 있었다.⁽⁵⁾ 特히 1883年 여름에 50名의 留學生을 데리고 東京에 갔을 때에 金玉均先生은 Loomis, Knox, Maclay 牧師 등을 위하여 自身이 배운 宴會席上에서 적어도 2年以內에 韓國宣敎 및 敎育事業이 開始될 수 있도록 努力할 것을 約束하였다.⁽⁶⁾

在日美國監理教會 宣敎師 맥클레이牧師는 1884年 6月에 金玉均의 先約을 받고 그의 夫人을 同伴하고 서울에 와서 金玉均을 通하여 國王에게 美國人 宣敎師의 韓國內에서의 敎育 및 醫療事業의 允許를 要請하였다.⁽⁷⁾ 國王은 在日美國宣敎師團의 請願을 정밀히 검토하고 또한 金玉均의 意見을 물은 후에 그것을 許하기로 決定하였다.⁽⁸⁾ 同年(1884) 7月 3日 金玉均을 通하여 敎育事業에 對한 允許를 받은 맥클레이목사는 駐韓美公使 Foote氏에게 美領事館 옆에 教會 및 敎育事業을 爲한 基地의 買受를 依頼하고 곧 東京으로 건너갔다. 그 땅이 바로 貞同教會 건너편에 있는 저 有名한 Gray House가 서 있는 곳으로서 實로 韓國基督教 및 現代敎育의 發祥地가 되었다.

2. 카우처總長과 閔泳翊과 韓國現代敎育

1883年頃 美國內에서 일어난 韓國宣敎運動은 亦是 韓國現代敎育의 實現에 큰 도움을 주었다. 金玉均等의 改革派靑年들이 日本을 通하여 新文明을 받아들여려는 데 反하여 保守派의 閔泳翊은 그것을 美國에서 直接 받아들여기로 생각하고 同年에 美國視察을 斷行하였다. 와싱턴으로 向해가는 途中에 빨티모에서 우연히 韓國宣敎 및 敎育의 功勞者인 카우처大學校 總長 카우처(J. H. Goucher) 牧師와 同車가 되어 오랫동안 談話하는 中에 카우처목사는 韓國宣敎에 對한 決意를 갖게 되었고 閔泳翊은 新敎育의 實施를 決心케 되었다. 그러므로 閔氏는 歸國하자 곧 現代

(3) 1885年 12月 24日付 李樹廷 書翰

(4) R. S. Maclay, Commencement of Korea Methodist Episcopal Church (The Foreign Missionary, 1884)

(5) North Presbyterian Mission Report for 1885 p. p. 128-130

(6) Loomis, About two Koreans 1916

(7) R. S. Meclay, "Korea's Permission to Christianity" (The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 Vol. 19, No. 8, 1895)

(8) 同上

學校의 設立을 國王에게 奏達하여 그 允許를 얻었다.

3. 宣敎初期의 敎育事業

우리나라는 1882年 美國과 더불어 修好條約을 締結함으로써 비로소 門戶를 世界에 開放하였으나 封建思想에 사로잡힌 保守派의 極端的 反對로 基督敎에 對하여서는 歷代의 斥邪政策을 그대로 固守하였다. 宗教自由를 밝히려는 美國의 主張은 끝내 좌절되었고 1883年 韓英條約에서 비로소 公使館 官吏들의 宗教儀式이 許諾되었으나 基督敎의 傳布는 如前히 國禁으로 남아있었다. 그러므로 宣敎事業은 1884年 여름에 맥클레이 牧師가 國王에게 許可받은 대로 醫療事業과 敎育事業에 局限될 수 밖에 없었다.

1885年 4月 5日 韓國最初의 宣敎師 언더우드牧師와 아펜젤라牧師 內外가 濟物浦에 上陸하여 公使에게 서울入城에 對한 公使의 意見을 묻는 書信에서 『우리는 敎育事業을 시작하고 語學을 研究하려고 왔읍니다. ……우리는 서울에서 한국어 研究生으로서 또는 敎育事業者로서 美國의 國기아래서 保護를 받을 수 있겠읍니까……지금은 선교사업이 아니라 敎育事業을 始作함이 어떻겠읍니까』⁽⁹⁾ 라고 묻은 것을 보면 그들은 韓國의 宣敎事業은 敎育事業으로서 始作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아닌게 아니라 언더우드목사는 1884年 가을에 中國으로부터 來韓하여 醫療宣敎事業을 開始한 美國北長老敎 宣敎師 Allen 博士의 病院學校의 敎師로 入國했고, 들어오자 곧 醫學班에서 가르쳤다.⁽¹⁰⁾ 이처럼 初期의 宣敎事業은 敎育事業만이 許諾된 때문에 그들은 敎育事業을 醫療事業과 함께 가장 먼저 始作하였다.

4. 敎會 옆에 學校

그러나 韓國 初期宣敎事業에 있어서 敎育事業을 가장 먼저 始作한 것은 單純히 그것만이 許可된 때문에 不得已 取해진 것은 아니었다. 그랬다면 1890년경 선교사업을 공공연하게 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敎育事業과 醫療事業은 中斷되었어야 할 것이다. 宣敎師들 사이에 若干의 異論이 있었으나 그냥 계속하자는 데 意見의 一致를 보았다. 宣敎事業에 있어 敎育事業과 醫療事業이 傳道事業과 併行되는 것은 一慣例로 되어 있다. 韓國敎會가 敎育事業을 하게 된 데는 四大目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첫째는 그리스도敎의 眞理를 바로 理解케 하려는 것이었다.

新敎의 開拓者 칼빈선생은 敎會옆에 반드시 學校가 있어야 할 것을 主張하였다. 그것은 敎育을 通하여 聖書의 知識을 豊富히 할 수 있으며, 信仰을 공고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훈련이 필요한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韓國敎會는 한국 現代敎育의 先

(9) 배재학보 제1호

(10) L. H. Underwood: "Fifteen Years Among the Top-Knots" p. 6.

驅者가 되었을 뿐 아니라, 教會가 서는 곳마다 학교를 세워서 現代教育의 發展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

그 둘째 目的은 傳道였다. 學校는 가장 좋은 傳道機關이다. 우리나라 最初의 現代學校는 基督敎學校 아닌 것이 없던 것처럼 最初의 基督敎學校學生치고 不信者 아닌 學生은 없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英語를 배우려고 基督敎學校에 들어 왔지만 나중에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기독교의 眞理를 배우게 되었다. 培材學堂의 例에서 본다면, 1887년까지는 生徒의 大部分이 不信者였는데 1890년에는 禮拜에 參席하는 사람이 不少하였다(11).

그 셋째 目的은 敎役者의 養成이었다. 선교사들은 韓國의 福音化는 少數의 宣敎師만으로는 될 수 없고 多數의 韓國人 傳道者가 있어야만 이루어질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教會學校의 教育目標의 가장 큰 것은 敎役者 或은 教會奉仕者의 養成에 있었다. 梨花學堂의 創設者 스크렌톤夫人은 梨花學堂의 教育의 目標은 학생들로 하여금 저들의 친구와 이웃 가운데서 十字架의 證據者가 되게 하는 데 있다고 言明하였다(12).

그 넷째 目的은 韓國民族을 無知에서 해방시키는 것이었다. 無知는 人間을 가장 비참하게 만들며 無價値하게 만드는 것이다. 無知처럼 人間을 悲慘에 빠트리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宣敎師들은 韓民族을 無知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學校를 세웠다. 敎新學校의 前身인 救世學堂의 創設者 Underwood 博士는 同校의 教育目標中の 하나는 학생들에게 西歌科學을 가르쳐서 그 文化의 水準을 向上시킴에 있다고 말하였다(13). 이 四大目的의 實現을 위하여 全國의 教會 옆에 學校 하나씩이 세워진 것이다. 이처럼 한국 교회는 始終一貫 韓國 現代教育의 母體가 되어 왔다.

二. 韓國 現代式教育機關의 濫觴

1. 最初의 男學校 培材學堂, 最初의 女學校 梨花學堂

國內에서 가장 처음으로 始作된 現代式教育은 1883年 8月 韓國政府外交顧問官 Moellendorf 主宰下에 서울에서 始作된 英語講習所이었다. 그것은 通譯官을 養成하기 위한 것으로서 英國人 T. E. Hallifax 와 中國 敎師가 가르쳤다. (14) 그러나 그것은 政府의 行政上 必要에 應하여 임시로 세워진 것이었고 決코 正式學校로 始作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1886年 育英公院

(11) North Methodist Episcopal Church Report for 1885, p. 239

(12) G. w. Gilmore, "Korea from It's Capital" p. 300

(13) 同上 p. 98

(14) H. N. Allen, "Chronological Index" p. 13. G. W. Gilmore, "Korea From It's Capital" p. 233

이 생기자 곧 없어졌다. 그런 理由에서 育英公院의 前身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다음은 1883 年에 佛蘭西神父들에 의하여 明洞에 設置된 孤兒院이 있다. 그들은 불쌍한 孤兒를 모아서 한글과 敎理書를 가르쳐 카톨릭 信者를 만들었다. 學生은 男女 240 名에 達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宗教的 目的이 強하였으므로 學校로 보기는 어렵다. 다음은 1885 年 가을에 Allen 博士의 主宰下에 시작된 醫術講習班이 있었다(15). 그러나 그것은 病院에서 從事하는 韓人 助手들의 時急히 要求되는 病院 奉仕를 爲한 講習이었고 正式學校로 始作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때에 Underwood 牧師가 敎育事業을 위하여 來韓한 것으로 이미 알려졌고 또한 病院에서 化學과 物理學을 가르쳤으니 만큼 그것은 하나의 敎育事業이었음에 틀림없으며, 또한 Allen 博士와 Underwood 牧師의 마음속에 그것을 正式 醫學校로 發展시킬 意思가 充分히 있는 것도 사실이다(16). 그러므로 그것을 세브란스醫學校의 前身으로 보아도 크게 틀림은 없을 것 같다. 다만 正式 學校로 始作되지 않은 것 뿐이다.

國王에게 學校의 設立에 對한 正式稟議를 올려서 그 內諾을 얻어 가지고 學校를 始作한 것은 두 말할 것도 없이 培材學堂이었다(17). 1885 年 가을에 아펜젤라牧師는 Foulk 領事를 통하여 國王에게 學校設立에 對한 計劃을 품달하여 內諾을 받고, 同年 8 月 3 日에 英語工夫하기를 願하는 李謙羅·高永弼 두 青年을 데리고 自己 집에서 그 敎授業을 開始한 것이 바로 大培材學堂의 歷史的인 開始로서 韓國 現代敎育史上 永遠히 記念되는 일이다. 韓國 現代式學校의 嚆矢가 된 培材學堂은 그 翌年 6 月 8 日에는 監理敎 宣敎部의 公認學校가 되어 7 名의 學生을 가지고 Mission School로서의 첫 出發을 하였으며 그 翌年인 1887 年에는 學堂이 크게 發展 확장되어 西洋式建物의 新校舍를 가졌고 學生의 數는 75 名에 達하였다. 이 때로부터 同學校는 國王과 政府의 好意와 認定을 크게 받게 되었다. 國王은 많은 學生을 同校로 보냈으며 政府는 그 學校 出身을 政府에 採用할 것을 約束하였다. 特히 同年 6 月 8 日에는 李太王께서 親히 培材學堂이라는 校名을 지어서 當代의 名筆 丁學喬에게 學堂 看板을 쓰게 하고 外務衙門督辦 金允植을 시켜서 賜額 看板을 아펜젤라博士에게 傳하였다. 培材學堂은 이때로부터 全民族의 學校가 되었다. 그리고 1895 年 9 月 24 日에 培材칼레지가 되어 韓國 最初의 專門學校가 되었다(18).

培材는 以來 80 餘年間 겨레의 지식의 寶庫가 되었고, 民族精神의 증추가 되었고, 新文化의 先導者가 되었다. Underwood 牧師는 아펜젤라목사보다 먼저 서울에 들어와 먼저 敎育事業을

(15) H. N. Allen, "Medical Work in Korea." D. L. Giffort; Every-Day Life in Korea p. 187

(16) L. H. Underwood, "Fifteen Years among the Top-Kotes" P. 6

(17) M. E. North Report for 1885, p. 239.

(18) "PAI CHAI COLLEGE", The Korean Repository September, 1896, p. 361

始作하였고, 1886年 봄에 오늘의 敎新學校의 前身이라고 볼 수 있는 「예수교학당」을 始作하였으나⁽¹⁹⁾ 長老敎宣敎會의 理解와 協助가 監理敎宣敎會의 그것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1897년에 일단 休校되어 培材學堂과 함께 韓國 現代式學校의 雙壁이 되지 못한 것은 크게 유감되 일이었으나 그러나 이것을 키워서 大學校까지 만들려는 그의 初志는⁽²⁰⁾ 변함없었기 때문에 1902년에 萬難을 排除하고 救世學堂으로 다시 再建하여 오늘의 敎新學校로 發展시켰다. 그리고 1914年 同校內에서 呱呱의 聲을 發한 『朝鮮基督教大學』은 오늘 韓國 最大의 大學中의 하나인 延世大學校로 發展되었으니 時의 不運은 恨할 만한 것이 못된다.

1886년에 國立病院 廣惠院의 간호원으로 來韓한 A. J. Ellers 嬢은 1888년에 Underwood의 예수교학당의 부대사업으로 女子敎育事業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Ellers 嬢은 身病으로 이 일을 계속하지 못하였고, M. E. Hayden 嬢이 一時 이 事業을 맡았다가 1890년에 이르러 S. A. Doty 嬢에 의하여 學生은 9명이 되었고 漢文, 한글, 성경 以外에 옷과 음식만드는 法을 가르쳐 주었고 1892년에 V. E. Strong, V. C. Arbuckle의 協助을 얻어 비로소 學校의 形態를 갖게 되었고 1895년 가을 蓮池洞으로 옮겨 學校를 더욱 확장했으니 이것은 바로 現 貞信女學校의 前身이다.

韓國監理敎會는 韓國 新敎育事業에 있어서 長老敎보다 훨씬 好運에 놓여 있었다. 그것은 스크랜튼(M. F. Scranton) 夫人이 韓國 最初의 女宣敎師로 아펜젤라목사와 함께 와서 全的으로 女子敎育을 開拓한 때문이다. 1886年 6월에 1명의 學生으로 始作된 한 女學校는 夫人의 熱誠으로 그 해 11월에 新校舍로 移轉하였고⁽²¹⁾ 그 翌年인 1887년에는 國王과 政府의 認定을 받아 明成皇后로부터 梨花學堂이라는 아름다운 校名을 받아 韓國最初의 女學校가 되었다. 同年에 L. C. Rothweiler의 協助를 얻기 시작했고, 1891년에는 Bengel 嬢이, 1893년에는 J. O. Paine 嬢, L. E. Frey 嬢, M. W. Harris 嬢 等の 協助를 얻어 크게 發展되었으며 學生의 數는 43명이 되었다. 80餘年の 歷史를 가진 同校는 오늘의 大 梨花로 發展되었다.

2. 最初의 國立學校 育英公院

1883年 美國 視察를 마치고 돌아온 閔泳翊은 歸國하자 곧 現代式學校의 設立을 國王에게 주달하여 그 允許를 얻었고 政府는 곧 美國政府에 韓國 現代敎育의 指導 乃至 敎育에 適當한 人物 若干人의 추천을 依賴하였다. 同依賴를 받은 美國政府는 當時의 美國政府의 文敎部長官인 Eaton 將軍에게 그것을 위촉하였으므로 그는 곧 神學校를 卒業한 神學者 셋을 그 후보자로 選定하였다. 그들은 곧 韓國의 文化 및 歷史의 研究로 有名하였고 解放後에 동경하던 韓國을 90老軀로 다시 찾아왔다가 不幸히 別世하여 양화진 서양인 墓地에 묻혀서 그 一平生을 기

(19) Gilmore, "Korea From It's Capital" p. 297

(20) H. H. Underwood, "Mordern Education in Korea" p. 21

(21) M. F. Scranton, "Woman's Work in Korea" (The Korean Repository, Vol. No. 1, p. 34

〈統計表 第一〉

| 所屬別 學校別 年度 | 基 礎 | | | | | | | | | | 系 學 校 | | | | | | | | | | 一 般 弘 官 公 立 學 校 | | | | | | | | | | | | | | |
|------------------|-----|---|-------|---|--------|---|---------|---|-------|---|-------|---|---------|---|---------|---|-----------|---|---------|---|-----------------|---|-----------|---|-----------------|---|--------|---|--------|--|-----------|--|--------|--|-----------|
| | 大學校 | | 中 學 校 | | 小 學 校 | | 各 種 學 校 | | 幼 稚 園 | | 大 學 生 | | 中 學 生 | | 小 學 生 | | 各 種 學 校 生 | | 學 校 總 數 | | 學 生 總 數 | | 官 公 立 學 校 | | 一 般 弘 官 公 立 學 校 | | | | | | | | | | |
| | 男 | 女 | 男 | 女 | 男 | 女 | 男 | 女 | 男 | 女 | 男 | 女 | 男 | 女 | 男 | 女 | 男 | 女 | 男 | 女 | 男 | 女 | 男 | 女 | 男 | 女 | 男 | 女 | | | | | | | |
| 190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0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0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0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0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1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1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1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1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1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1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2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2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2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2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2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2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2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3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3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3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3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3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3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3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3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3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4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4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計 | 126 | | 908 | | 18,483 | | 7,532 | | 2,907 | | 2,151 | | 124,537 | | 997,049 | | 306,557 | | 155,266 | | 29,956 | | 1,584,546 | | 1,330 | | 20,505 | | 65,020 | | 8,492,255 | | 21,835 | | 7,657,275 |

備考: 統計表 第一은 下記諸資料에 依하여 作成되나, 但 1905~1915年, 1918年, 1929~1931年, 1934~1942年의 統計는 長老系學校에 限하였고 1916~1917年, 1919~1928年, 1932~1933年의 統計는 長老 및 監理敎 六宣敎會 所屬의 學校들이 包含되었다.

그리고 參考로 1906~1910年, 1912年, 1919年, 1936~1942年의 一般私立學校 및 官公立學校의 統計를 本統計表 外에 附하였다.

資料: ① 大韓老會會錄 1907~1911年
 ② 長老敎總會會錄 1912~1943年
 ③ Statistics of Federal Council for 1917~1933
 ④ 大野謙一, 朝鮮敎育問題觀見 pp. 72~3
 ⑤ 朝鮮總督府學務局 朝鮮諸學校 一覽 1944
 ⑥ 學務學務局 學務狀況報告 第 6 回要錄 (1910) P. II
 ⑦ 吳天錫, 韓國新敎育史

統計表 第二·三은 1910年 2月現在 學部認可宗派別 宗敎學校狀況 및 1910年 5月現在 私立學校의 總數인시, 吳天錫著 韓國新敎育史 pp. 194~195에서 引用하였다.

(吳氏는 學部, 韓國敎育의 現在 (1910)를 高橋의 朝鮮敎育史考 pp. 309~10에서 再引用하였음)
 統計表 第四는 1896年의 4長老敎宣敎會 및 北監理敎宣敎會 所屬學校의 統計表로서 D.L. Gifford의 Every-Day Life in Korea, 1898에서 引用했다.
 參考로 國立 및 一般學校의 統計를 本에 附했다.

리 한국을 위하여 바친 『士民必知』의 著者 H. B. Hulbert 博士와 培材學堂의 第2代校長이 된 D. A. Bunker 牧師와 George W. Gilmore 牧師等 3人이었다. 選擇을 받은 3人은 1884年中으로 韓國에 오려고 했으나 甲申政變으로 말미암아 지연되었다가⁽²²⁾ 1886年 7月 4日에야 도착되어 同年 9月 23日 授業을 始作하니 이른 바, 育英公院이었다.

이 學校는 國營임은 勿論 學生의 選定까지 國王이 直接 行하는 名實상부한 한국 初유의 國立學校였다. 그러나 10年이 가지 못하여 不人氣로 계속 운영의 必要가 없게 되었으므로⁽²³⁾ 培材學堂에 併合시켰다.

3. 韓國最初의 大學校 崇實大學

韓國宣敎의 大立物인 馬布三悅博士와 裴偉良博士는 平壤이라는 宣敎의 沃土에 宣敎地를 定하는 好運을 가진 닻으로 敎會 및 敎育事業이 全國에서 가장 힘차게 發展되어 1900年頃에는 두 事業이 아울러 全國의 數의 約 4分の 3을 占하는 大상황을 보게 되었으며, 大學의 設立도 그 先頭에 서게 되었다. 1894年 Dr. Moffett 을 設立者로 李永彥을 敎師로 平壤 널다리골 敎會에서 始作된 한 적은 學校는 1897年에 Dr. Baird 를 校長으로, 朴子重을 敎師로 『예수교 학당』이 되어 北長老宣敎會 平壤 Station의 直營學校가 되었고, 1901年 韓國式 二層校舍가 新築된 때에 裴偉良校長의 書記이며 同學堂學生이던 崔光玉에 依하여 崇實學堂이란 새이름이 지어졌다. 이 崇實學堂은 急速度로 發展되어 1906年에는 敎育事業에 新중한 태도를 가지는 그들로서도 大學의 必要性을 절실히 느끼게 되어 마침내 大學部를 設置하였고 그 翌年에는 韓國政府로부터 大學의 認可를 얻어 韓國最初 大學의 榮冠을 차지하였다. 1909年에는 2명의 卒業生을 내어서 最初의 文學士 學位를 수여하였다. 이 大學은 많은 著名한 敎會指導者와 敎育者를 길러 내었다.

4. 最初의 醫學校 세브란스 醫學校

韓國 最初의 西洋式病院인 廣惠院 안에서 1885年 가을에 Allen 醫師에 의하여 始作된 醫學班은 1886年 4月 10日에 Allen, Underwood, Heron 을 先生으로 正式 開校되었다⁽²⁴⁾. 그러나 그것은 如前히 韓國政府의 經營에 屬하는 것이었다. 1893年에 한국醫學界의 大立物인 에 비슨博士가 來韓하여 濟衆院을 引繼받아 宣敎會 單獨經營으로 만들고 1899年 루이스 세브란스(Louis Severance)라는 慈善家에게서 莫大한 寄附金을 얻어 南大門外 구리개(銅峴)에 病院을 新設한 때로부터 醫學校는 本格的인 發展을 보게되었고 1908年에 7名의 第1回 卒業生을 내어 最初의 韓國人 醫師가 생겼다.

(22) G. W. Gilmore, "Korea from It's Capital" p. 228

(23) H. B. Hulbert, "The Passing of Korea" p. 338.

(24) Gilmore, "Korea from It's Capital" p. 296, H. W. Allen, "Chronological Index" p. 19.

三. 韓國 現代教育의 系譜와 特徵

우리는 기독교학교의 發展을 考察하기 前에 韓國 現代教育의 系譜 卽 그 系統과 特徵을 살펴서 기독교학교의 한국현대교육사상에 있어서의 位置를 저울질 해보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된다.

韓國 現代教育의 系統은 主流와 傍系의 兩系가 있다고 볼 수 있다. 主流는 基督敎學校系와 國立學校系(舊韓國)와 私立學校系가 그것이고 傍系는 日本에 合邦된 以後의 官公立學校系가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그 兩系의 學校들은 各各 그 特徵을 달리하고 있다. 基督敎學校는 그 教育의 理念을 그리스도의 희생 봉사의 精神에 두었다. 韓國 最初의 基督敎學校인 培材學堂은 그 創立初에 同校의 教育理念으로서 「欲爲大者 當爲人役」이라는 여덟 字의 堂訓을 宣言하였다.⁽²⁵⁾

偉大한 人物이 되려면 먼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것은 聖書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마 20:27)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봉사의 精神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펜젤라牧師는 培材學堂을 찾아 오는 學生들에게 『영어는 배워서 무엇하려는가?』고 물으면 모두 『입신 출세하렵니다』라고 對答하는 것을 보고서 이러한 校訓을 만들었다.⁽²⁶⁾ 그 후에 設立된 基督敎學校들도 모두 이 精神위에 섰음은 두말할 것 없다. 『누구든지 목숨을 아끼는 자는 잃을 것이요, 버리는 자는 얻으리라』는 그리스도의 희생 봉사의 精神이 基督敎學校의 教育理念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 理念 아래서 배우는 사람들은 自然히 民族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게 되었다. 생명을 초개같이 여기며, 一平生 祖國의 獨立을 위하여 싸우다가 或은 刑臺에서 或은 教壇에서 쓰러진 사람의 大部分은 基督敎學校에서 배운 사람들이었다. 1911年의 百五人事件은 日本爲政者들의 基督敎學校와 教會를 相對로 한 大迫害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 간악한 고문을 참고 견디어서 저들의 허구날조로된 악랄한 謀略에 넘어가지 않았다. 三·一獨立運動을 일으킨 것도, 神社參拜를 抗拒한 것도 그리스도의 희생 봉사정신에 사는 기독교학교들이 그 先頭에 섰다. 基督敎學校는 한국의 아들 딸들에게 義를 爲하여는 生命을 아끼지 않는 굳은 信念을 선물로 주었다. 그러므로 그 許多한 變遷과 苦難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 남아서 祖國의 光復과 함께 再出發케 되었으니 기독교학교야말로 韓國 現代教育의 主流中에서도 本流요 正統이라고 할 수 있다.

(25) 培材史 50頁

(26) M. E. North Report 1885, p. 267.

國立學校系는 1886년에 最初의 國立學校인 育英公院을 세우게 된 動機가 富國強兵에 있었더니 만큼 新文化를 받아들여서 農業과 産業을 진흥시켜 나라를 富하게 만들고 兵制와 軍器를 改良하여 國力을 무찌를 수 있는 強國을 만들자는 것이 그 敎育理念이었다. 現代文明의 精神은 빼어버리고 그 方法만을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얼마 아니가서 學生들은 國立學校가 官職의 획득과 榮達에 別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보고 모두 달아나버렸다. 1894年頃에 明成皇后가 國立學校의 再建을 Underwood 牧師에게 依賴하여 그 成案을 보기까지 하였으나 不幸하게도 그 實現을 보기 前에 暗殺되어 國立學校系는 쇠잔의 一路를 걸게 되었다. (27)

私立學校系는 抗日 民族思想을 그 特徵으로 하였다. 私立學校의 大的인 興起는 1904년 日本의 保護條約이 強制로 締結된 以後였다. 國運이 危機에 臨하였을 때에 京鄕 各地의 愛國志士들은 분기하여 아는 것이 힘이오 團結만이 사는 길이라는 標語 밑에 많은 學校를 세우게 되었다(別紙統計表參照). 그러므로 私立學校의 特徵은 民族精神과 獨立思想이었다.

官公立學校系는 1910年 日韓合邦 以後에 日本政府가 強行한 所謂 植民地 敎育으로서 利用, 同化의 敎育이다. 좋은 심부름군을 만들려는 敎育이오, 억지로 日本사람을 만들려는 敎育이다. 한 말로 해서 不義 不正의 敎育이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해방과 함께 사라졌다. 解放以後의 公立學校는 日本人의 官公立學校를 繼承한 것은 아니고 [舊韓國의 國立學校系의 바튼을 계승한 것이다. 이리하여 지금은 主流의 基督敎學校系, 私立學校系, 國立學校系가 互相 協助하면서 再發展中에 있다.

四. 基督敎學校의 發展과 韓國 現代敎育의 育成

1. 基督敎學校만의 初創期(1885~1893)

韓國의 現代敎育은 敎會가 그 母體가 되어 있으며 基督敎學校가 그 嚆矢가 되었음은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거니와 1894년 [所謂 甲午更張에 이르기까지 韓國의 現代敎育은 基督敎學校의 獨舞臺였다(統計表第4參照). 國立學校인 育英公院은 不人氣로 오래 持續되지 못하였고 1895년에 培材學堂에 併合되었다. 무슨 일이나 先頭에 선다는 것은 榮譽도 되려니와 責任이 무겁다. 始作이 半이란 말은 잘된 始作을 意味하는 것일 것이다. 그런데 基督敎學校는 그 敎育의 理念이 사람의 生命을 救護하는데 있었고, 基督敎學校의 設立者들은 私心을 가지지 않은 宗教團體 乃至 宗教人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주려는 敎育이었고, 받으려는 敎育은 아니

(27) L. H. Underwood, "Fifteen Years Among the Top-Knots" p. 119

었다. 校舍도, 施設도, 모두가 저멀리 美國敎人들의 정성어린 회사금으로 되었고 學費는 커녕 식사와 옷을 대어주면서까지 敎育을 시작했던 것이다. 그만 하면 基督敎學校는 韓國 現代敎育의 初創期를 담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韓國基督敎學校는 韓國 現代敎育의 先驅者의 榮譽를 부끄럼없이 가질 수 있다.

一毫의 差가 千里의 違를 가져온다고 했거니와 萬一 韓國 現代敎育의 첫 出發이 잘못되었더라면 그 前程이 어땤하였으리라는 것은 育英公院의 例에서와 日帝의 官公立學校의 例에서 잘 엿볼 수 있다.

2. 甲午更張과 日本의 敎育侵略(1894~1906)

日本의 韓國에 對한 政治的 野慾은 日淸戰爭에서 勝利를 얻은 때로부터 露骨化되었다. 1895年 3月 日本은 韓國을 허울 좋은 獨立國으로 만들어 놓고 누구의 干涉도 받지 않고 제 마음대로 料理하려는 것이었다. 우리에게 舊庶政의 革新이나 敎育制度의 革新이 必要치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그 革新의 裏面에 日本의 魔手가 가로 놓여 있었으니 바른 革新이 될 수는 없었다. 李太王 32年(1894) 2月에 國王의 敎育詔書가 내려져 敎育立國의 大方針은 宣明되었고, 同年 4月에 漢城 師範學校의 官制가 公布되었고, 同年 5月 10日에는 外國語學校의 官制가 同年 7月 19日에는 小學校令이 公布되었고, 光武 3年 4月 4日에는 中學校官制가 制定公布되어 科擧制度는 廢止되었고 成均館 以外的 舊敎育機關은 모두 자취를 감추었으나 그 新學制라는 것은 日本人 顧問의 마음대로 한 것이어서 日本의 敎育制度를 그대로 模倣한 것이었다. 1895年에 서울 교동에 國立師範學校가 섰고 재동, 미동, 교동, 수혜동, 정동에 다섯 國立小學校가 設立되었으나 그것들은 모두 併合의 野望을 품은 日本人의 뜻을 따라갈 수 밖에 없었다. 그 法令은 日本의 敎育侵略의 開始를 意味하는것 以外에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1904年 日露戰爭에서 勝利한 日本은 韓國의 完全 併合을 一步一步 強行하였다. 同年에 韓日協約이 成立되어 고문정치가 始作되었고, 그 翌年(1905)에는 新協約이 強行되어 벌써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道理가 없게 되었다.

敎育을 革新하고 內容을 忠實히 한다는 美名下에 日本人은 學部의 次官을 爲始하여 官公立學校의 學監, 或은 校監의 자리를 獨占하여 韓國의 敎育을 左右하게 되니 國立學校는 日本人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말았다. 1892年 서울 교동에 나가시마와 오야를 敎師로 日本語學校가 섰고, 1896年 4月 16日 진고개에 고시마와 진구를 敎師로 日本敎會主管의 日本語學校가 設立되었으나 그것들은 역시 政治的目的을 가진 것이었다. 1896年 正月에 서울 박동에 佛語學校가 同年 5月 10日 同所에 露語學校가, 同年 同所에 英語學校가 각각 設立되었으나 그 壽命은 길지 못하였다. (統計表第 4 參照)

3. 發展期의 基督教學校와 私立學校(1907~1909)

日本人의 教育侵略이 本格化되면서 도리어 基督教學校와 私立學校가 크게 發展하였다는 것은 하나의 奇異한 現象인 同時에 쓰러져 가는 韓國民族에게 주어진 일루의 希望이기도 하였다. 1900年以後의 基督教學校의 發展相을 보면 참으로 놀랄 만 하다. 1906年度 長老教 教會의 統計表에 依하면 長老教會에 所屬된 學校만도 238校였다. 그리고 1910년에는 全國의 私立學校 數가 2,250校였는데 그 中에 一般私立學校가 1,402個所요, 一般私立普通學校가 16校요 基督教學校가 823校였다. (統計表第2參照) 1910년에 寺內總督은 그의 最初의 施政演說에서 『私立學校中에 大部分은 宣教師의 經營인데 生數徒가 20萬을 넘으니, 普通學校의 生徒數를 훨씬 초과한다.』(朝鮮教育問題管見 p.31)고 말하여 基督教學校의 왕성한 發展相을 確認하였다. 이렇게 基督教學校가 發展된 理由는 日本의 積極的인 侵略行爲에 자극되어 일어난 民族的 自覺과 自身의 無力을 솔직히 認定하는 反省과가 많은 靑少年들을 基督教學校로 모여 들게 한 때문이며 또한 宣教會가 1897년에 決定된 教育政策에 依하여 地方에 教會學校를 세우는데 積極協力했기 때문이었다. 이 때에 宣教師들은 治外法權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教育事業 其他에 있어서 自由로웠으므로 많은 靑少年들은 거기에 큰 매력을 느꼈다.

一般私立學校는 亦是 抗日民族運動의 指導者들에 依하여 세워졌다. 李東輝先生, 李昇薰先生, 安昌浩先生, 南宮穩先生 등은 모두 우리나라 一般私立學校界의 큰 功勞者들이다. 平壤의 大成學校, 定州의 五山學校, 서울의 휘문學校 등은 그 代表되는 것들이다. 그런데 그 設立者들은 모두 基督教人이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五. 基督教學校의 受難과 民族精神의 守護(1910—1945)

1. 大轉換期(1910~1915)

1910年 日韓合邦이 되어 總督政治가 始作되자 韓國教育界에는 一大轉換을 보게 되었다. 第1代 總督 寺內는 1911年 8월에 所謂 朝鮮新教育令을 發表했는데 그야말로 환골탈태된 本格的인 植民地教育이었다. 그 第2條에 『教育은 教育에 關한 勅語의 趣旨에 依하여 忠良한 國民을 育成함에 있다.』라고 있어 韓國人은 꿈쩍못하고 日本의 종이 되는 教育을 받게 되었으며, 第3條에 『教育은 時勢와 民度に 적합케 할 것』이라고 있어 差別教育을 明示하였고, 第28條에 『公私立學校의 設置 또는 廢止는 朝鮮總督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 教育의 主權을 한 손에 掌握하였고, 第29條에 『學校의 教科目及 그 課種, 職員 教科書에 關한 規定은 朝鮮總督이 이를 定한다.』라고 있어 틀에 박힌 機械教育을 할 作定이었다. 그리고 新

教育令의 草案을 作成한 후에 學務局長 關屋貞之郎은 法學博士 穗積八東에게 그 批判을 請하였는데, 同博士는 그 回答文에서 基督敎學校와의 衝突은 그 敎義上 不可避한 일이니 그것을 念頭에 두고 基督敎學校政策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말하였다(28) 그 書信의 1節을 보면 다음과 같다. 『忠孝와 大義를 根軸으로 하는 儒敎的 道德과 博愛人道를 大本으로 하는 基督敎의 倫理와는 그 道德觀에서 差異가 있고 人間을 平等으로 하고 尊卑를 非理로 하는 基督敎의 敎義와 皇帝의 神聖과 君父의 尊嚴을 基本으로 하는 儒敎的 敎義와는 全然 그 主義를 달리한다. 우리나라에서 예수교선교사들이 이것을 調和시켜 본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예수敎의 根本精神은 잃어버리게 될 것이니, 一種의 道德宗教가 되고 말 것이다.』 이 말은 곧 앞으로 敎會가 自己의 信條를 버리고 학교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信條를 固守하고 學校를 버리느냐의 重大問題가 야기될 것을 예상한 것이었다. 아닌게 아니라, 그들은 帝政末年에 基督敎學校에 兩者擇一을 強要하였던 것이다.

1915年 3월에 公布된 韓國私立學校에 對한 新敎育令은 일층 가혹한 植民地敎育이었고 反 基督敎敎育이었다. 學制를 變更하여 小學校를 普通學校로, 中學校를 高等普通學校로 變更케 하고 敎科目에 있어서는 성경, 한국역사를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이며, 敎員은 日本語에 通達한 자라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基督敎學校를 억누르자는 데 그 目的이 있었다. 그리하여 基督敎學校는 큰 難關에 빠지게 되었다.

2. 衝突期(1916~1929)

1915年의 大修正을 加한 私立學校 規則은 私立學校의 敎育을 억매며, 또 한편으로 없애버리려는 획책에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私立學校 當국자들의 不平은 폭등하기 始作하였다. 私立學校로서는 주관적인 감정에서나 객관적인 정세로 보아 이 規則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한국인 일반 대중은 이제야 敎育기관이 일본 사람의 손아귀에 들어간다는 느낌이 새삼스레 일어났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쌓여올 때에 第1次 世界大戰이 일어났고, 美國 윌슨大統領의 民族自決의 原則이 發表되자 敎會와 學園을 中心으로 一大獨立運動이 일어났다.

燎原의 불길같이 일어나는 民族抗爭의 고향에 놀란 日本은 1919年 8월에 齊藤을 총독으로 보내어 지금까지의 武斷政治를 所謂 文化政治로 바꾸게 되었다.

基督敎學校의 設立者인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6개 宣敎會 代表者로 組織된 宣敎師團은 때를 놓치지 않고 감연히 일어나서 敎育에 대한 日本當국의 不當한 억압에 항거하였다. 同 宣敎師團은 長文의 抗議書를 齊藤에게 제출하였으니 그 허두의 一節과 內容의 骨子는

(28) 穗積八東의 書翰

다음과 같다.

『우리는 각하가 조선 통치의 정책을 변경할 계획이 있다는 말을 듣고 심히 기뻐한다. 구한 국시대로부터 이 땅에 居住해 오는 우리는 한국을 합병한 이래로 그 시정이 우리의 기대에 어그러져 全國에 武斷政治를 베풀고, 우리가 구한국시대에 받아 가진 종교와 교육의 자유를 제한하고 한국인의 自由를 박탈하고, 부당한 차별적 대우를 규정하고 한국인을 억압하고 가혹히 다룬 결과로 드디어 한국인의 반발을 사서 금년의 독립운동의 소요를 빚어 내는데 이른것을 보고 통절히 실망을 느꼈다.

가. 기독교주의의 사립학교에 있어서 성서와 종교적 의식과를 정과목으로 승인할 것.

기독교주의 사립학교의 목적은 기독교정신에 대한 고등보통교육을 베푸는데 있으므로 성서를 가르치며 종교적 의식을 행하는 것은 이런 학교가 세계각국에 있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그리고 성서와 종교의 참된 가치를 알게 만드는 것이 선량한 국민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인정하고 우리들의 학교에 있어서 이것을 가르치는 것을 허가하여 주기를 바란다. 日本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에 있어서도 私立學校의 宗教教育의 自由를 許하여 주기를 바란다.

나. 韓國語의 使用制限을 철폐할 것.

한국학생이 日本語를 배우고 그것을 익히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을 쓰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사람은 나면서부터 自己들의 말을 쓸 권리가 있는 것이며 학교에서 韓國語로 교육 또는 시험을 하는 일을 허가하기를 바란다.

다. 私立學校 經營에 있어 現在以上の 自由를 許하며 不必要한 官憲의 간섭을 中止할 것.

우리는 정부가 私立學校의 設立者와 校長의 經歷을 考慮하고 또는 學校의 實蹟에 關하여 相當한 標準을 세울 권리가 있는 것을 自認한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와 같이 政府가 私立學校 教師의 봉급 其他 細目을 一定하게 하려 하고, 혹은 教科目을 고치려 할 때에 일일이 政府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게 하고, 혹은 政府에 협의하지 아니하고는 교사를 선택 또는 해직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또 일상사무에 關한 規定을 만드는 데도 정부의 승인을 받게 하고 심지어 수업료를 고치는 데도 정부의 許可를 얻도록 하였으나 이러한 여러가지의 방법은 私立學校의 일대 특전인 自由發展을 방해하는 것이다. 원하는 바는 앞으로 우리들 私立學校에 있어 필요에 따라 自由로이 한국인 校長과 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官憲의 위압으로써 學父兄에 對하여 그 子女를 基督教主義 學校로 보내는 일을 방해하지 말도록 할 것.

라. 교사와 學生은 良心의 自由에 구애받지 않도록 할 것.

基督敎主義의 學校 學生에게 日曜日에 여러가지 行렬에 참가케 하거나 또는 官吏出迎을 命하는 일이 적지 아니하고 敎사의 시험도 日曜日에 行하는 일이 往往있으니 이러한 要求에 應하려면 基督敎徒로서는 信仰良心이 許諾치 않으니 이를 특히 참작할지며, 또 우리 基督敎主義의 學校로서도 天皇을 禮拜케 해야 하고 그 사진에 對하여서도 敬禮하여야 한다 하니 이는 우리를 너무 무시한 것이 아닌가 한다. 帝王을 尊敬하고 거기에 順從한다는 것은 基督敎徒가 항상 聖書와 敎의를 통하여 배우는 道義이다. 天皇과 위정자를 위하여 축복하는 것은 우리 主日禮拜의 一部이다. 그러나 天皇을 神으로 或은 神과 같은 至高者로 하여 예배하는 것은 기독교로서는 全然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무리한 요구가 없기를 바라는 바이다.

다. 敎育의 機會均等を 許하고 敎科書의 選擇의 自由를 許할 것.

특히 韓國역사 및 世界역사 敎수에 制限을 주지 말 것.

바. 總督의 허가를 얻어서 經營하는 私立學校의 卒業生은 官公立學校의 그들과 같은 대우를 할 것.

사. 私立學校에 對하여 과도한 財産을 要求하지 말 것.』

齊藤은 1920年 3월에 所謂 新敎育令을 발표하였는데 그것은 기독교학교의 요청을 어느정도 고려한 것이 사실이다.

敎科書의 制限의 廢止, 敎員의 資格 완화, 敎育과 宗教의 分離主義의 中止 등이 그 骨子였다. 완화된 新敎育令 때문에 기독교학교는 高等普通學校가 되지 않고 所謂 總督의 指定學校란 것이 되어서 聖經을 正敎科目으로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

日本의 敎育侵略이 잠시 小康狀態를 유지하는 동안에 基督敎學校는 前例없는 큰 發展을 보게 되었다. 1922年度의 基督敎學校 統計에 依하면, 大學 4, 中學 46, 小學 1021이었다. 그러나 1922년에 新敎育令이 發表되어 日本語를 生活語로 바꿀 것과 朝鮮語讀本을 副讀本으로 할 것과 韓國歷史 敎수의 禁止等を 命令하였다. 1928년에 山梨가 總督으로 되자 기독교학교의 對策으로 儒敎倫理를 高調하고 實業敎育과 一面一校 敎育을 내세워 心腹敎育을 始作하면서 一便으로 私立學校의 思想 감시를 가혹히 함으로 또 다시 우리의 反抗심은 비등하기 시작하여 翌年(1929)에 光州學生事件의 폭발을 보게 되었다. 한편 이때로부터 기독교학교는 學的 水準에서 公立學校에 뒤떨어지기 시작했으므로 학교의 시설확충, 유자격 敎員의 채용등을 요구하는 學生들의 동맹휴학이 크게 일어났다. 기독교학교는 그 뒤 서서히 개선되어 갔으나 대대적 국가지원을 받는 公立학교를 따라갈 수는 없었다. 그 영향은 해방된 뒤에도 계속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경기, 서울 등 國公립학교가 소위 一流學校로 軍립하고 있다.

3. 受難期(1930~1945)

1931년에 宇垣總督은 義務教育을 표방하고 산간벽지에까지 소위 簡易學校를 세우고 日本말을 배워주게 하며 또한 소위 農村振興教育을 표방하여 미국 생산에 힘썼으니 그것은 日本이 앞으로 꿈꾸는 中國과 東南亞細亞의 侵略을 위한 戰爭에 소요되는 人的 資源과 食糧의 確保를 위한 간악한 수단이었다.

1936년에 南次郎이 總督이 된 후로는 所謂 國體명징, 內鮮一體 忍苦단련을 教育의 方法으로 하여 내심으로는 그렇지 않지만은 겉으로는 한국인을 일본인으로 만들어서 땅과, 민족과, 언어와, 사상을 송두리채 빼앗으려고 했다. 그러므로 學制는 日本의 學制를 그대로 채용시키게 하였으며 學生들은 성을 갈고 충을 들고 그들을 위해 싸우게 까지 되었다. 삼촌하고 뺨치는 格이었다. 이때에 기독교학교는 南總督의 神社參拜強要의 첫 희생이 되었다. 信仰을 지키고 學校를 버리느냐, 學校를 지키고 信仰을 버리느냐 하는 문제가 닥쳐오코야 말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精神으로 세워진 기독교학교는 끝내 信仰을 버리지 않고 고히 校門을 닫아서 기독교학교의 最後를 빛나게 장식하였으며 이로써 民族精神을 잘 守護하였다.

六. 解放以後의 基督教學校

解放과 함께 教育의 自由는 왔다. 이곳 저곳에서 學校를 새로 세우기 始作하였다. 극도로 팽창된 向學熱은 마침내 學校의 亂立相을 이루어 놓았다. 從前의 帝國主義 教育制度는 一時에 사라지고 美國式 民主主義 教育制度가 實施됨으로써 學制는 完全히 變해졌다. 갑작스러운 變動때문에 얼마간의 결함은 면치 못할 것이었으나 解放以後에 가장 큰 發展을 본 部門은 亦是 教育方面이었다. 亂立이란 一時的 現象도 不可避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때문에 배움의 길을 널리 열어 놓아서 배울 수 없는 靑少年들이 많이 배웠다는 좋은 결과도 생각치 않아서는 아니될 것이다. 人文系 편중교육을 탄하기도 했지만은 그것은 自然系로 옮겨가는 과정으로 생각해서 무방하다. 5.16 軍事革命과 함께 學校整備가 斷行되어 우리의 目的하는 教育의 方向은 밝혀졌으니 韓國教育의 前途는 洋洋타고 볼 수 있다.

解放以後의 基督教學校의 發展相은 놀랄 만하다. 1968年現在 大學校 2, 大學 23, 男女中高等學校 135, 國民學校 48, 유치원 180, 神學大學 11, 神學校 56의 방대한 통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기독교학교의 標準은 國立學校와 同一 水準에 놓여지기를 努力하는 데 있음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基督教教育의 實現을 위하여 크게 努力하고 있는 것도 解放前에 볼 수 없었던 特徵的인 일이다. 各教派 合同의 基督教教育協會가 생겨서 教科書의 編刊 基

督敎敎育의 方法의 改善等에 힘쓰고 있으며 基督敎學校 聯合기구도 생겨서 基督敎敎育에 對한 共同步調를 取하고 있다. 그러나 今年에 새로 생겨진 中學 및 大學의 入試制度和 文敎部의 私立學校에 對한 政策等은 基督敎學校에 큰 위협을 주고 있다. 強力한 對策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結 語

韓國現代敎育 80年史를 회고해 보면, 기독교학교는 그 개척자가 되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自然科學과 民主主義를 개발 부식 시켰고 國學의 發展과 樹立에 큰 공을 세웠다. 아울러 우리나라 現代敎育의 精神的 基軸이 되어왔다. 희생 봉사의 정신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基督敎學校의 敎育理念이었고 이 理念은 갖은 迫害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왔다.

다시 日本人의 利用, 同化敎育의 本所였던 公立學校는 우리에게 惡의 結果만을 남겨주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一部の 사람만이 日本人의 願하는 사람이 되었고, 全體的으로는 民族精神이 살아있었으며 그들 밑에서 덕분에 工夫는 특특히 하게 되었으므로 우리나라의 學的 水準은 그들에 의하여 높아졌다. 기독교 학교가 公立學校에 精神的 影響을 준 反面에 公立學校는 基督敎學校에 學問의 質的 向上에 자극을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解放이후에 敎會學校의 出身들은 民族全體를 리드해 나가는 데 앞장 섰고 公立學校의 出身들은 司法行政 各部門의 技術者로 등용되어 祖國 再建에 크게 힘썼다. 그리하여 基督敎學校의 精神的 基軸과 公立學校의 學的 技術과가 서로 結合되어 新生 大韓民國의 新敎育을 담당하게 되었다.

解放以後에 再建된 基督敎學校들의 敎育理念을 보면, 表現上 若干 다른 점은 있으나 『眞理와 奉仕』라는 말로 代表되고 있다고 보아 무방할 것 같다. 眞理는 不變의 것이며 生命이 있는 것이다. 우리의 敎育이 不變의 眞理와 永遠한 生命 위에 터해야 할 것은 再言을 不要한다. 그 眞理는 곧 『나는 길이요, 眞理요, 生命이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 自體시며 그리스도께서 人類를 위하여 自身을 희생함으로써 그 眞理를 人生에게 나타내어 주셨으니 眞理를 探求하는 者 반드시 奉仕의 生活로써 그것을 얻어야 할 것이다.

今後 우리나라의 敎育은 그 內容과 方法에서 많은 變遷을 가지게 되겠으나 敎育의 理念만은 『眞理와 奉仕』 그대로 永續되어야 할 것이다. 그 점에서 기독교학교의 使命과 任務는 옛 날이나 다름없이 重且大하다.